

# “용서한 사람 없는데 스스로 용서?”

대불청, 8월 15일 디아베정권 강력 규탄

“광복절 하루 전 8월 14일 아베담화가 발표됐지만 그 어디에도 침략행위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아무도 용서한 사람이 없는데 스스로 용서받았다고 주장하는 아베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 이하 대불청)는 8월 15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광복 70주년기념 ‘일본 우경화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불청은 일본어로 적힌 ‘아베의 정치를 허용할 수 없다’ 팻말을 들고 일본대사관 앞에 섰다. 일본지식층이 안보법 반대 시위 당시 내건 슬로건에 대한 동조 표시다.

대불청은 “대동아공영권이라는 미명하에 저질렀던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 행위는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이고 폭력적 행위”라며 “그럼에도 아베신조 총리와 자민당 정권은 반성과 사죄는커녕 자국의 과거를 부정하려는 우경화 정책으로 역사적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대불청은 위안부 강제동원 관련 아베정부의 사죄와 진상규명 및 법적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대불청은 “24년째 매주 수요일 일

본대사관 앞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지만 일본대사관 문은 굳게 닫힌 채 피해자들의 통탄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면서 “아베신조 총리 취임 이후 역사인식 관련 발언을 비롯해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자위권 행사 인정 등은 한일 간 역사적 상흔과 갈등에 불씨를 지핀 행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불청은 “일본 정부는 평화헌법 제9조 (일본의 전력 보유 금지와 국가 교전권 불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함)를 재해석 및 개정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위대를 통상적 국가 군대로 재편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며 “엄연히 국제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불청은 “반해 대선사의 자주 독립과 만민평화 정신을 계승해 아베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스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죄와 법적 보상 △야스쿠니신사참배 중단 △집단적 자위권 행사사도 중단 △과거제국주의 침략행위 반성과 왜곡된 역사 교육 중단 등 촉구했다.

박아름 기자



대한불교청년회는 8월 15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광복70주년기념 ‘일본 우경화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법인 스님, 대흥사 종회의원 사실상 당선

조계종 중앙선관위, 19일 후보자 자격심사

학성 스님, 직능직 후보 사퇴  
선일 스님 자격 미비로 탈락

운사 중앙종회의원 후보로 이름을 올린 선일 스님은 미등록사설사암 보유, 재산 미등록 등을 이유로 자격 미비를 확정했다.

직능직 교육분야 중앙종회의원 입후보한 학성 스님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8월 18일 오후 사퇴서를 중앙종회 사무처에 제출해 자격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31일 예정된 직능직 선출위원회 회의는 취소됐으며, 차기 직능직 선거는 내년 2월에 열리게 됐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오는 8월 31일 오후 2시 제306차 회의를 열고 선운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 선거인 명부 확정 및 봉선사 주지 후보자 자격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 해인사 재적승 및 동문 여러분께 올립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하오며,

해인사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고 계신 해인사 재적승 및 해인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근래 해인사 신임 주지 임명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런 일들이 일어나 여러분에게 놀라움과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깊은 우려를 표명해 주신 해인사 재적승 및 해인동문 여러분께 수행자의 본분에서 매우 송구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염원해 주신 총무원장스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해인사의 신임 주지가 임명되었습니다. 총무원장스님께서 신임 주지스님에게 화합을 당부하셨습니다. 총무원장스님께서 고심하고 숙고하신 결과 모든 것을 구축하였기에 신임 주지로 임명하셨으며 염려되는 부분 또한 적지 않기에 특별히 화합을 당부하셨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8월 13일, 중진들이 방장스님을 찾아뵙고 참회를 올려서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 저의 제안이 무산된데 대해서는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나아가 지난 6년 동안 해인사 정상화를 위해 공들인 무수한 노력이 원활한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우며, 저의 부덕의 소치로 생각합니다.

홀어져 반복하고 있는 해인사 대중의 다양한 견해를 하나로 모아 공의로 엮어내고 새 출발의 기운으로 삼아야 하는 과제가 신임 주지스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방장스님의 권위와 존엄에 대한 각별한 외호를 신임 주지스님께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해인사를 걱정해 주신 재적승 및 해인동문 여러분께 거듭해서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해인사를 기대합니다.

불기 2559(2015)년 8월 20일

제15대 해인사승가대학총동문회 회장  
봉은사 주지 **원학 합장**

# 사병·장교 불자 확대... 군포교 지평 넓혀

반환점 돈 ‘군종교구 3기’ 평가 및 과제

2013년 7월 24일 출범한 조계종 군종교구 3기 활동이 반환점을 돌았다. 2년여의 성과를 토대로 군종교구는 군장병 배가 운동 등 후반기 활동을 활발히 벌인다는 계획이다. 2년 동안의 성적표와 과제를 짚어 보았다. 노덕현 기자

### ‘자장면’으로 장병 마음 녹여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바로 ‘자장면 보시’다. 정우 스님의 교구장 취임 이후 군종교구는 가장 먼저 장병포교에 집중했다. ‘장병포교에 힘쓰는 군법사들의 자양분이 되겠다’는 취임사처럼 정우 스님은 전국 부대 114곳, 병당 157곳을 직접 찾아다니며 장병들을 만났다. 스님이 보시한 자장면은 지금까지 2만 그릇에 달한다. 또 불자가 아닌 군장병들에게도 핫팩 50만개, 장갑 33만개 등 월동용품 지원했으며 최근에는 전방 군부대에 북가페도 개설했다. 이 같은 장병포교는 군종병 출신인 정우 스님의 원력이 컸다는 평가다.

수계인원도 2013년 감소 추세를 따랐지만 정우 스님 부임 후 증가 추세다. 2013년 10만 5000여명에서 2014년 11만 6500여명으로 늘어났으며, 2015년 전반기의 경우 2014년 대비 4000여 명이 증가했다. 군종교구는 전반기 활동을 바탕으로 후반기에는 군불자 10% 증대 목표인 ‘군장병 불자 배가 운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 불자장교 양성, 생도 5% 증가

이와 함께 군종교구 3기에서는 불자장교 양성에도 나섰다. 육해공 116곳의 법당에서 신행생활을 하는 4500여명의 간부불자 명단의 통합관리를 도입해 전출입시 특별관리를 실시했다. 또 각급 사관학교 법회에 많은 공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15년 전군 사관생도 1100여 명 중 불자생도가 377명으로 2014년에 비해 5% 증가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군종교구는 초임불자장교를 대상으로 해당부대 군승이 방문해 법회활동을 권유하는 등 신행생활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 타종단과는 갈등 풀어야

2014년 7월에는 창군 최초로 비구니 군종장교인 명법 스님이 파송되기도 했다. 올 해 6월에는 군재 스님이 두 번째 비구니 군법사로 임관해 활동 중이다.

군승 파송 또한 2013년 11명, 2014년 13명을 파송했으며 우수군승 육성을 위해 예비군승으로 후보 10명, 요원 58명을 관리하고 있다. 교구 장학제도를 도입해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이 전방 군부대에서 자장면 공양 후 장병들을 위로하고 있다. 군종교구 3기는 이런 발로 뛰는 군포교를 통해 군장병 배가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늘어난 군장병들을 일선사찰과 연계하는 작업은 남은 임기 과제로 지적된다.

2015년 총 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군승 파송을 두고 발생한 다른 종단과의 갈등은 풀어야 할 과제다. 천태종은 지난해 국방부의 군승파송 요청 부결을 두고 조계종과 군승 수급에 대한 논쟁을 벌인 바 있다.

정우 스님은 당시 “스님들인 군승요원만으로도 군승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며 “조계종 군종교구 체제에 들어와 법회의식을 같이하고 스님으로서 군포교에 매진한다면 충분히 함께 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 노후 군사할 개보수 등 숙제

군종교구는 후반기 노후군법당 신개축 및 보수불사를 추진한다. 군종교구는 3기

전반기 동안 32곳에 26억여 원을 투입해 신축 및 보수불사를 완료했다. 현재 신축 추진 법당은 9사단 신병교육대, 2해병사단, 36사 신병교육대 등 3곳으로 이밖에 군국체육부대와 상무대 영외법당에 법당 신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특전사, 정보사 등 8곳이 부대이전을 추진 중이어서 신축법당이 필요하다. 또 전역자병 관리를 위해 포교원과 연계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작업도 과제로 꼽힌다.

군종교구는 “재원마련을 위해 군보수 예산 반영 등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올 10월부터 교구본사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포교원 등 관계 기관 등과 연계활동을 통해 군포교의 성과가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수행 도량의 명예 회복 이룰 것”

해인총림 해인사 주지  
향적 스님 임명

원학 스님 사과 성명 발표  
해인사 갈등 마무리 수순

해인총림 해인사 주지에 향적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8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해인총림 해인사 신임 주지 향적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의 추천서가 접수된 지 9일 만이다.

임명식 직후 향적 스님은 “그간 해인사 문제로 종단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해인총림이 수행 중심 도량으로서 면모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자승 스님은 “해인사는 숲이 많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8월 19일 해인총림 해인사 신임 주지 향적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곳이다. 숲이 많은 곳에서는 대처할 수 없는 일이 많다”면서 “방장 스님을 잘 모시고 전임자 스님들을 이해해 화합으로 산승을 운영해달라. 여러 경험이 많으신 만큼 잘 하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이후 “주지 직무대행 스님들도 수고하셨다. 산고기 길었던 만큼 다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인사 주지 선임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이 사죄의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해인사 갈등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원학 스님은 8월 2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원학 스님은 “근래 해인사 신임 주지 임명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런 일들이 일어나 여러분에게

놀라움과 걱정을 끼쳐드렸다”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해 주신 해인사 재적승 및 해인동문 여러분께 수행자의 본분에서 매우 송구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8월 13일, 중진들이 방장스님을 찾아뵙고 참회를 올려서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 저의 제안이 무산된데 대해서는 큰 아쉬움이 남는다”며 “지난 6년 동안 해인사 정상화를 위해 공들인 무수한 노력이 원활한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우며, 저의 부덕의 소치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학 스님은 신임 주지 스님에게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스님은 “홀어져 반복하고 있는 해인사 대중의 다양한 견해를 하나로 모아 공의로 엮어내고 새 출발의 기운으로 삼아야 하는 과제가 신임 주지스님에게 주어졌다”면서 “방장스님의 권위와 존엄에 대한 각별한 외호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향적 스님은 일타 스님을 은사로 1967년 해인사에서 수계(사미계) 하였으며, 해인지 초대편집장, 불교신문사 사장, 교육원 교육부장, 중앙종회 12, 13, 14, 15 대 의원, 제15대 중앙종회의장(후반기)을 역임했다.

신성민 기자